

옛 전남도청의 '기억과 사건' 예술로 소환하다

ACC 야외전시 '현장속으로'

내달 24일까지 상상마당 등 5·18 항쟁지 흔적 재해석 눈길 복원공사서 나온 폐기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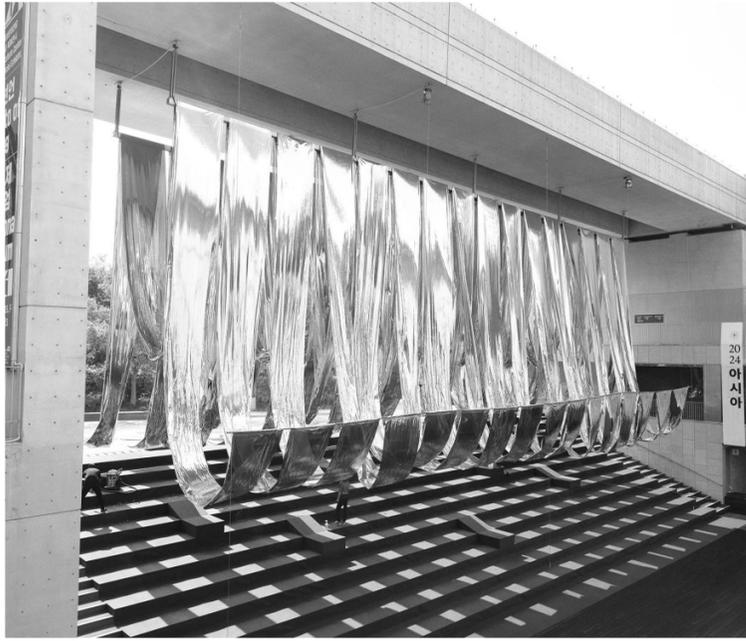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부지는 광주읍성이라는 일제강점기 저항의 역사, 전남도청이라는 5·18민주화운동 항쟁의 역사 등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현장' 중 하나다. 동시대 새로운 건축물들이 채워진 그 자리에 과거의 사건과 기억은 지워져 있다. 현재 ACC는 2015년 11월 개관 당시 일부 훼손됐던 옛 전남도청의 흔적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CC는 공사장 가설 울타리로 둘러싸인 전당의 모습을 '장소에 축적된 사건과 기억'이라는 맥락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야외전시 '현장속으로: 기억과 사건'을 오는 11월 24일까지 선보인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광주시민의 참여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다양한 작업들이 펼쳐진다.

전시에는 김동희, 석운동, 오중, 이용열, 정소영,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In-

side Out Project) by JR, OBBA가 참여하며, 조각, 설치, AR 등 다양한 작품이 준비돼 있다. 가장 먼저 ACC 상상마당에 설치된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포토부스 형태로 관람객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 즉석으로 자신의 초상을 촬영한 후, 오디오 녹음 공간에서 옛 전남도청 등 광주의 역사에 얽힌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참여형이다.

전시 프레스투어가 진행된 15일, 5·18 때 현장을 지켰던 광주시민 정용국 씨가 시연자로 참여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유명 아티스트 JR의 전지구적 예술 프로젝트로 정용국 씨 이외에 오는 19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 1000명의 참여를 기다린다. 프린트 된 시민들의 사진은 바로 앞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울타리 벽면에 부착된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초상은 예술 작품이 되고 거리는 미술관이 된다.

ACC 광장에 펼쳐진 김동희 작 '망루'와 '해변'은 큐알코드를 통해 연동되는 AR(가상현실)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설치된 하얀색 가설 울타리와 연결돼 폐장한 겨울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특히 복원공사 현장에서 수집한 콘크리트와 파벽돌을 놓아, 과거의 흔적을 드러내 작품을



OBBA 작 '바람의 골짜기'.

ACC 제공

완성했다.

ACC 음악분수 곳곳의 정원을 채운 석운동의 '독'은 벤치형 작품으로 실제 관람객들이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역사가, 퇴적과 침식이 반복돼 강에 자연스레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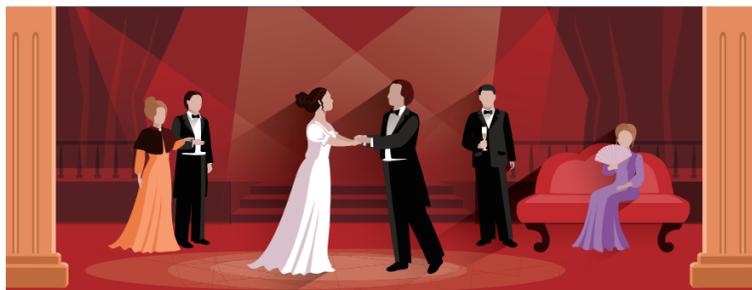
긴 '독'의 모양에 빗대져 제작된 작품이다.

정소영은 물자국 형태의 금속 조각을 ACC 지표면에 응집시킨 '응결'과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서 수집한 폐자재, 흙, 시멘트 가루들을 균한 조각 '침전물'을 선

보인다. 이소정, 박상준이 설립한 디자인 그룹 OBBA는 ACC 예술극장 빅도어 앞 플라자 브릿지에서 패브릭 설치 작품 '바람의 골짜기'를 선보인다. 패브릭과 와이어 등의 소재로 바람의 움직임을 시청각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공간을 매개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중은 ACC에 조성된 배롱나무 숲 사이 선형의 조명을 매달아 '빛 드로잉'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용열은 광주읍성의 이미지에서 착안한 '상실공유'를 선보인다. 건축현장의 폐플라스틱을 재처리해 성곽 파빌리온을 완성했다.

ACC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기관이 되고자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전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 접근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 관람을 위해 ACC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동선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확대글자, 촉각 도표, 음성해설이 들어간 홍보물을 준비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작품 감상 가이드는 배우 김홍표의 재능기부로 녹음했다. 전시가 열리는 10~11월 두 달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터치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파리 상류사회의 비극적 사랑 '라 트라비아타'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25~26일 광주예당 대극장서

광주시립오페라단은 베르디의 첫 번째 로맨스 오페라이자 오페라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라 트라비아타'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길 잃은 여인'이라는 뜻의 '라 트라비아타'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원작으로 한다. 당시 파리 상류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베르디 오페라 중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으로 파리 사교계의 꽃인 비올레타가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베르디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귀족 사회의 쾌락주의적 문화를 비판하며, 코르티잔(상류층을 상대하는 고급 매춘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되묻는다.

이번 공연은 최철 예술감독의 총괄 아래, 이경재 연출가가 탁월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으로서 쌓아온 그의 깊이 있는 연출력이 이번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 카펠마이스터(음악 총괄 약장)로 활약하며, 독일 음악협회에서 선정한 '미

래의 거장'으로 주목받은 송안훈 지휘자가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와 함께 완벽한 드라마를 선사한다.

매혹적인 동백꽃 여인 '비올레타' 역에는 김희정 소프라노와 박수연 소프라노가 출연해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열연한다. 비올레타를 사랑하는 순수한 귀족 청년 '알프레도' 역은 강동명 테너와 이재식 테너가 맡고,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제르몽' 역은 바리톤 공병우와 조재경이 연기한다.

이 외에도 정상급 성악가들은 물론, 노이어 앙상블과 광주시립합창단·발레단 등 시립예술단의 참여로 무대의 예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이경재 연출가는 "한 여인의 짧은 삶을 베르디의 역동적인 음악과 함께 드라마가 살아 숨 쉬는 무대에서 아련함을 경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최철 예술감독은 "음악과 함께 사랑과 희망, 슬픔과 상실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무대는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7회 정기공연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과 26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gjart.gwangju.go.kr)과 티켓링크(ticketlink.co.kr, 1588-7890)를 통해 가능하다.

박찬 기자

예락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 공연

23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조선시대 소설 재해석 등

예술단체 예락의 판소리극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이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2024 전국풍류자랑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마련됐다.

공연은 조선 정조 때 이덕무가 창작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경제적 곤궁으로 혼기를 놓친 노총각, 노처녀를 국가 주판 아래 혼인시킨 일화를 담은 고대소설 '김신부부사혼지'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특히 예락은 이번 공연에 독신과 비혼이라는 현대의 가족상을 스토리로 추가했다. 혼기를 놓친 이들을 규범에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담았다. '혼수 준비가', '떡타령', '기우제' 등이 연주되며 미디어아트, 무용, 연극 등이 어우러져 기대를 모은다.

김보람 예락 대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독신과 비혼 등 현대 사회현상과 맞물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예매 정보는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락은 지난 2015년 호남권에서 창단된 예술단체로 창·제작 공연 개발 및 지역 협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지난해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분공연 '판소리극 동상기'와 2023 전국풍류자랑에 당선된 '환백당이야기' 등이 있다. 박찬 기자

상상력으로 변형된 일상의 이미지, 그 유쾌함

김일태 '도시농부의 생썸' 전 30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

산수아트스페이스가 김일태 작가 초대 기획전 '도시농부의 생썸'을 오는 30일까지 본관 1층에서 개최한다.

김일태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수아트스페이스에서 8회 개인전 '도시농

부의 생썸'을 통해 올해 작업한 연작 20여 개 작품을 전시한다.

김 작가는 미술을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의 대상을 바라본다. 그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이미지 변형 혹은 단순화시킨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가을비, 찻잔, 모기장 등 일상의 대상에서 연상되는 유쾌한 이미지를 끄집어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든다. 또 일상 이야기를 상상력을 통해 '서사이

미지'로 변형하고, 이를 미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이를 지극히 관조할 기회를 제공한다. '맨발 걷기', '가을비는 사랑을 타고', '등대가 태풍을 피하는 방법' 등 유쾌한 그의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람객은 세상을 독특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음미할 수 있다.

장민한 산수아트스페이스 대표는 "김일태 작품의 강점은 '일상의 서사'가 녹아든 심미적인 이미지를 그린다"고 평가하며 "그의 작품 속에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 위트 있게 녹아 있다"고 평했다. 박찬 기자

깊어가는 가을밤 10월 '목요콘서트'와 함께

31일까지 빛고을 소공연장 첼로 앙상블·오페라 등 풍성

깊어져 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10월 '목요콘서트' 무대를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24일, 31일

4회에 걸쳐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목요콘서트 △13회차는 그나데첼로과 르넛의 피아노 앙상블 무대 '첼로와 함께 춤을' △14회차는 펠리체슬리스트팀이 오페라 작품 속 대표 아리아들로 구성된 성악 공연 '여인들의 오페라 사랑' △15회

차는 조이오브뮤직이 선보이는 바그너 '베젠돈크가곡'의 실내악 연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마지막 16회차는 스위트뮤직앙상블의 실내악 연주 '드뷔시 인 파리'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된다.

관람 예약 및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